

# 도내 청년들 “전주, 특례시로 지정해야”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생활인구 100만 명 초과  
공공기관 중심도시로  
국가균형발전 목표 실현을”

전북지역 청년들이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지구 청년회의소는 22일 전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북지역 청년전주

시 특례시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는 지금 미래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도 특례시 지정 기준에 포함시켜 반드시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전북은 산업화 이전까지 전국 인구의 10%를 차지할 만큼 중요 지역이었고, 전북의 중심인 전주 또한 호남권의 대표적인 문화행정 중심도시였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정책적 투자에서 전북지역은 철저히 외면 받으며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등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역대 정부의 광역단위 발전정책으로 전북 지역의 낙후가 지속되어 왔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최근 전주는 연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내 명실상부한 탄소산업도시이자 지속발전가 능한 생태도시로서 미래의 비전을 날로 확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광역단위

정책적 투자가 여전히 계속됨으로써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며, “특히, 전주는 실질적 인구 지표인 생활인구가 100만 명을 초과했고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 및 공공기관 중심도시로서 정책결정 등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전주 특례시 지정을 통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

부개정안은 인구기준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토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또 다시 수도권 과밀과 국가불균형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 인구 50만 이상으로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 광역시 없는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도 포함하는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지역시민단체 등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송효철 기자

‘해례의 두루공방 우리웃전’  
갤러리 소소서 5월 17일까지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전시공간 갤러리 소소서에서 22일부터 5월 17일까지 약 4주간 김응자 의상 디자이너의 ‘해례의 두루공방 우리웃전’이 개최된다. 김응자 의상 디자이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의상학)를 졸업하고 한복기능사, 양장기능사, 패션디자인 산업기사, 의류기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김 디자이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패션컨텐츠 특별상, 전국한지공예대전 입선, 한지섬유패션디자인 경진대회 입선 등의 다양한 수상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생활한복 강사 활발히 활동 중이다. 김 디자이너는 유니폼 제작 회사에서 디자인 일을 하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의상에 전통한복 디자인을 가미한 자신만의 생활한복을 제작하면서 프리랜서의 길을 선택했다. 이번 우리웃전에서 그 결과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서 김 디자이너의 고민과 의상철학이 담긴 한지드레스, 누빔조끼, 허리치마, 절리원피스 등을 전시한다. 모두 손바느질과 재봉틀로 직접 만든 작품이다. 그 외 한지가방, 보자기, 한지부케 등도 선보인다. /송효철 기자

## “전주기접놀이의 육성책 필요”

김승섭 전주시의원, 5분 발언서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건립을 기점으로 이를 대표적인 전주시 무형문화유산 센터로 활용하고, 전주기접놀이를 시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육성,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섭 전주시의원(문화경제위원회, 삼천 1·2·3동)은 22일 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전주기접놀이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써 지난 2005년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문화관광부장관상(금상)을 수상했고, 2016년에는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해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앞으로도 대표적인 지역문화로써 전주민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지속가능한 미래유산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주기접놀이는 전수관 건립사업(50억)이 호천지구에서 추가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주기접놀이의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첫째,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부서 변경으로 우려될 지원체계 부족에 대한 적절한 대응, 둘째, 전수관 건립 이후 전주기접놀이 거리조성사업 및 기접놀이마당(공연장) 추진, 셋째, 전주기접놀이 공연에 관한 전주시 축제 전반에 접목 가능한 공연 콘텐츠와 사업을 적극 육성할 것 등을 촉구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내버스 개혁 필요성 ‘한목소리’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 토론회  
이용 편리·회사 재정 건실  
노동자 복지 향상 등 제시

대중교통 전문가와 시내버스 노사, 시민사회단체 등 47개 기관·단체가 버스 개혁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는 22일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전주시내버스 개혁의 필요성과 버스개혁의 방향을 공론화하기 위한 전주시내버스 개혁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버스개혁을 희망하는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내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장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순희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임성복 전주시 버스정책추진단장이 ‘전주시내버스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임 단장은 “버스는 자동차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해야 하며, 도시환경을 살리고, 시민들의 건강을 살리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며, 전주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4대 목표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 △회사의 재정 건실 △노동자의 복지 향상 △전주시 재정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원 소장과 문용호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이사장,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김인순 생태교통시민행동 공동대표가 해설로 참여하는 전주시내버스의 혁신적인 개혁방향에 대한 토론도 펼쳐졌다. 박용남 소장은 “전주시내버스의 개혁의 필요성,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추진 방법, 내용 등에 대해서 더 세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용호 이사장은 “전주시내버스 업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해 노사화합과 서비스향상, 자생력 강화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는 22일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전주시내버스 개혁의 필요성과 버스개혁의 방향을 공론화하기 위한 전주시내버스 개혁토론회를 개최했다.

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주시내버스 업체의 자생력이 약화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 문제점을 제거하며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문옥 사무국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시내버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주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대안으로 전주시내버스 감차와 완주군 운행 시내버스 노선 조정, 전주시내 마을버스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주시내버스 전철노선화와 시내버스 감차보조금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남규 정책위원장은 브라질 꾸리찌바의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 소개한 뒤, “꾸리찌바의 대중교통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정책의 일관성과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계획”이라며 “전주시의 버스개혁 추진도 이러한 두 축이 전제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인순 공동대표는 “현 전주시내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간선-간선, 간선-지선, 지선-지선이 연결되지 않는 노선체계에 있다”며, “전주내부 지간선제 도입에 따른 마을버스 운영이 이를 해결해 줄 핵심이며 자동차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전주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추진 전략과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버스개혁에 힘을 모으기로 한 47개 기관·단체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전주시내버스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 내달 2일까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대상기업 모집

전주시가 창업 후 3년 이상 7년 미만의 기업의 매출향상과 고용창출을 도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로 했다. 시와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오는 5월 2일까지 '20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후 3년 이상 7년 미만의 창업도약기 기업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역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 분야는 △모바일 앱 분야 콘텐츠 고도화 자금(최대 7억원) 지원의 창구 프로그램(구글플레이 연계)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및 R&D자금(최대 4억원)을 동시 지원하는 혁신성장분야 △매출증대와 시장진입·검증을 위한 사업화지원(최대 2억원) △창업기업 매출증대를 위한 제품개발, 수출지원, 시장지원, 유통망 진출 등 전문교육과 자금을 지원하는 성장촉진분야 등 4가지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기관 지정

전주시가 전문성을 갖춘 도시농업관리사 양성에 나섰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 저변확대와 도시농업관리사 육성을 위한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을 갖추고, 도시농업관리사를 양성하는 국가전문자격 교육기관이다. 센터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 도시농업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신규로 개설해 필요한 전문기술 교육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한다. /송효철 기자

## 치매 아내 살해 80대 검거

치매를 앓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모(8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경 군산시 흥남동 한 주택에서 아내(82)에게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3시간 뒤인 오전 5시경 유서를 작성한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무 말이 없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아들이 A씨 자택을 찾아와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아내에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권유했으나 이를 아내가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훈 기자

## 마트 농산물 절도 40대 붙잡혀

마트에서 농산물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45)씨를 붙들고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1시 38분경 완주군내 한 매장에서 7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손님이 마트에 들어가 직원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9천원 상당의 딸기를 구매할 뒤, 다른 물품을 훔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